

|초등 중·고학년, 청소년|

미래의 고전 31

〈5학년 5반 아이들〉

윤숙희 지음 | 푸른책들 펴냄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 수상작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5학년 5반 아이들』은 같은 반의 일곱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6월 말까지의 시간을 공유하는 동안 벌어지는 사건과 내면의 풍경을 연작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각각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다시 큰 서사를 이루는데, 이때 완성된 전체 밑그림이 조화로워 감동이 배가 된다.

작품 속 일곱 아이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특별한 면면은 바로 고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을 받아들이고 동행하며 자신의 내면을 부지런히 살핀다. 아이들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보이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고민이 결국 지혜와 경험으로 전환되어 축적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읽기 전 활동

1. 여러분은 몇 학년 몇 반인가요? 그리고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우리 반은 어떤 개성을 가진 반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2. 표지의 그림에 그려진 일곱 아이들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상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3. 차례를 읽고, 표지에 그려진 일곱 아이들과 이름을 짝지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천재 이야기」와 「한영 이야기」를 읽고, 한영이가 천재에게 준 노란 알약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답해 보세요.
- 2-1. 「준석 이야기」를 읽고, 준석이가 이사를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보세요.
- 2-2. 준석이의 장미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장미 이야기」를 읽고, 오디션의 심사위원이 장미에게 ‘진짜 노래’를 불렀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보세요.

내 이름은 천재다.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다. 안타깝게도 내 이름을 지어 주신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에 걸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

“넌 어떻게 이름값도 못하니?”

12년을 살아오면서 백만 번도 더 들은 말이다. 평범하지 않은 이름 때문에 늘 크고 작은 비참이 붙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붙었던 비참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태풍이 불고 거기에 해일까지 덮쳤다.

점심시간이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급식을 단숨에 먹어 치운 아이들은 만화책을 보거나 게임을 했다.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때 화장인 준석이가 교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신 나게 게임을 하던 나는 손을 멈추고 준석이를 보았다. 앞에서 게임을 구경하던 태경이도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는 눈길로 준석이를 보았다.

“한영이야. 아이큐가 148이나 돼.”

그 말에 교실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에이, 설마?”

“우우, 말도 안 돼! 장난치지 마.”

준석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장난 아니야. 교무실에 갔다가 선생님 책상 위 종이에 쓰여 있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지난번 아이큐 검사한 결과가 나왔나 봐.”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칭찬을 늘어놓았다.

“하긴, 한영이가 천재기가 있어.”

“맞아, 사차원인 애들이 원래 머리가 더 좋은 거야.”

아이들의 눈은 일제히 한영이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한영이는 없었다. 공부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몸을 흔들는 한영이는 정말 특이한 아이다. 주의력 결핍 장애야. 꼬리표처럼 한영이를 따라다니는 말이다. 앞으로는 머리가 좋은 아이라는 말도 따라다니겠지?

“회장,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애는 누구냐?”

태경이었다. 태경이는 실실 웃으며 나를 흘끗 쳐다보기까지 했다.

4. 「미래 이야기」를 읽고, 미래가 숫자와 글자들이 달려드는 꿈을 꾸 이유를 무엇인지 답해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천재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재’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그리고 천재라고 불릴만한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2. 「수정 이야기」를 읽고,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경험이 있는지, 그때의 기분과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3. 「장미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4. 5학년 5반의 일곱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고민을 가진 아이는 누구였나요? 그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웬지 불길하다. 실마 나는 아니겠지?
“글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으니 그건 공개하지 않겠어.”
준석이가 자리에 앉자 아이들이 그 애 주위로 우르르 모여 들었다.
“누군데? 누구 머리가 제일 나쁜데?”
“가르쳐 줘, 도대체 누구야?”
하지만 준석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까짓 게 뭐가 궁금하나? 난 하나도 안 궁금해.”
나는 부러 큰소리치며 교실을 빠져나왔다.
교실을 나오기가 무섭게 태경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거 보니 쪼리긴 쪼리나 보네, 도대체 천재 아이큐가 얼마나 되냐?”
준석이 뭐라고 답했나 보다. 다시 태경이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하하, 79라고? 어떻게 돌고래보다 머리가 더 나쁘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아이는 바로 나왔던 것이다.
내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다. 나는 구구단을 아직 다 외우지 못한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뺄 것 맞곤 했다. 하지만 79는 아니다. 아이큐 검사를 하다가 꺾

박 졸았다. 그 바람에 몇 문제를 놓쳤다. 풀지만 알았다면 적어도 80은 나왔을 텐데…….
“이제 천지라고 불러야겠네.”
큰일 났다. 태경이가 그렇게 부르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부를 것이다.
창문을 두드리며 비가 내렸다. 내리는 비보다 더 거센 비가 마음속에서 내렸다. 교실로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비 오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던 나는 도서실로 향했다. 도서실에 도착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영이가 책을 보고 있었다.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흔들고, 손가락까지 꼼지락거리면서, 그런데 무지 재미있는 책인지 한영이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무슨 책 보냐?”
내 몰음에 한영이가 읽고 있던 책을 쓱 내밀었다.
「뇌」.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책장을 넘기기가 무섭게 하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책이다. 이런 책이 재미있다고? 어이가 없다. 일어서려다가 이 책을 읽으면 한영이처럼 머리가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꼭 참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람은 평생 자기 뇌 용량의 10퍼센트도 쓰지 않으며, 아인슈타인이 15퍼센트도 제일 많이 썼다는 내용이다.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나같이 뇌 용량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은